

‘한계상황’ 이른 농업·어업 실태와 향후 전망

생산비 폭등·소득 ‘뚝’ ... 파탄 불보듯

영농비 부담에 수지 타산 안맞아 곳곳 ‘한숨만’ 어업인, 기름값 인상분 지원 없인 출항 못해

면세유·비료 등 영농 자재 값이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폭등하면서 농어업 현상이 고사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지역 농어업 현장 곳곳에서 “이제 더 이상 견딜 여력이 없다”는 자포자기식 한숨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같은 한계 상황에 대해 전문가들은 막대한 영농비 부담이 농어업 포기라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져오고, 종국에는 농가의 파탄을 불러올 수도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생산비 폭등에 침몰하는 농가=축산 농가는 사료값 부담과 LA갈비 등 미국산 쇠고기의 본격적인 상륙에 이종고를 겪고 있다.

전남지역 축협에 따르면 16일 현재 한우 암송아지 한 마리의 평균 가격은 148만원, 이는 1년전 같은 달의 227만원에 비해 35%나 낮은 수준이다. 여기에 사료 값이 오르면서 지난 1년 전에 비해 생산비가 40% 이상 더 들어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실정이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분석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

입과 사료 값 인상으로 축산농가들이 한우 한 마리를 키워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지난해에 비해 절반 이하로 떨어졌으며, 100kg짜리 돼지 한 마리 당 순수익도 5만원선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다른 가축보다 생산비 가운데 사료 값 비중이 큰 양돈업은 더욱 큰 문제다.

전남도 축정과에 따르면 생산비의 50~60%를 차지하는 사료 값의 상승(33%) 등으로 인해 지난 1년 전에 비해 양돈농가의 순수익은 최소 절반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면세유를 사용하는 비닐하우스와 온실 등 시설 농가들은 물론 폭등한 비료값 부담을 못내고 있는 일반농가들도 위기를 맞고 있다. 전남도는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어 면세유 사용이 본격화되는 올 겨울부터 시설 원예 농가가 극심한 경영난에 시달릴 것으로 보고 있다.

농촌경제연구원 한 연구위원은 “유가가 안정되지 않고 계속 오를 경우 연말에는 시설 농가들이 소득 감소 폭이 30%를 넘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가 보조 없인 배 못 띄워=전남지역 어업을 비롯한 전국어업인연대는 현재 한 드림당 22만원 선인 어업용 면세유 값을 감당하기 어렵다며 추가 상승분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해상시위에 나서자는 어민들마저 있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전남도에 따르면 전체 어업용 기름의 64%를 차지하는 고유황 경유 가격은 현재 22만~23만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해 같은 기간 10만1천원의 거의 두 배다.

지난 해 목포 수협 소속 중대형 기선저인망이 한번 출항해 2~3개월 조업하는데 평균 3천900만원을 연료비로 지출했으나 올해는 7천700만원 이상이 들어간다.

이 때문에 목포나 여수 항·포구에는 조업을 중단한 어선들이 즐비하고, 울 울며 갑적을 요구한 어선은 무려 1천800여 척이나 된다.

전농 광주전남연맹 정영석 사무처장은 “고유가와 사료·비료 값 폭등은 눈·발작물에서부터 시설 농업, 축산업, 어업 등 농수축산업과 관련된 모든 분야의 경영을 압박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이 같은 위기 상황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할 경우 우리 농업은 붕괴를 맞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지역 여성단체 회원들이 17일 오전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시의회 K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시의회 본회의장 입구에서 강박원(왼쪽) 의장 등 의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내량주기자 mjna@kwangju.co.kr

여성단체 등 감시 거세 힘로 예고

성폭력 의혹 의원 사퇴 압력·계과 갈등 불보듯

■ 광주시의회 후반기 전망

광주시의회가 17일 후반기 원구성을 가가스로 마쳤다. 선출방식을 입후보·정견발표식으로 개선해 의욕적으로 원구성에 나섰지만, 의장단(11일)→상임위원단(14일)선거에 이어 이날 운영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에서 ▲패거리 캐리 나부킴기 ▲주먹다짐 ▲도덕성 의혹 의원 상임위원장 선출 등 추태만 보여준 1주일이었다.

특히 이날 오전 10시 제17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려 했으나 여성단체 회원 30여 명이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며 본회의장 입구를 봉쇄하기도 해 향후 후반기 의회 앞에

펼쳐질 험로를 예고하는 듯했다.

◇거세지는 ‘시민 감시’=광주·전남 5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성폭력 광주시의원 사퇴 및 성평등 의회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 소속 회원들은 이날 이날 성폭력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을 상임위원장으로 선출한 데 항의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진입을 원천 봉쇄했다. 이들은 K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을 들고 “감찰이 시의회에 통보한 K의원의 비위사실통지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청 공무원노조도 “광주시민 뿔났다. 제발 사고치지 마세요”라고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강박원 의장 등 의원들은 이에 따라 간담회를 갖고 다음주 안에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비위사실통지서를 공개한 뒤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대책위는 봉쇄 2시간 10분 만에 농성을 풀었다.

◇계과 갈등도 불보듯=주류·비주류 감정다툼은 비리 혐의로 구속 수감중인 김남일 의원,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K의원 등에 대한 윤리위원회의 징계 논의 과정에서부터 불거질 수 있다. 상임위원장 선출 문제를 놓고 “다 해봤겠느냐”며 주먹을 휘두른 의원들도 품위를 지켜야 한다는 윤리위원회를 명백히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명자(민주·비례) 의원을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환경부-전남도 J프로젝트 갈등 커지나

“골프장 9개 줄여라” ... 전남도 “사업하지 말란 건가” 반발

서남해안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J프로젝트)을 둘러싸고 전남도와 환경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개발계획 승인을 위한 정부부처 협의과정에서 ‘골프장 수가 지나치게 많다’며 사업계획 보완을 요구해 온 환경부가 ‘골프장 3개를 줄이겠다’는 전남도의 수정안을 거부하고 무려 9개를 줄이도록 요구하자 전남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본보 7월10일자 3면)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J프로젝트 개발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12월부터 전남도와 협의를 벌이고 있는 환경부는 ‘사업부지내에 들어설 계획인 22개의 골프장 가운데 9개를 줄일 것’을 최근 전남도에 요구해왔다. 환경부는 ‘골프장이 많으면 철새의 이동통로와 먹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수질이 악화하는 등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이유로 들고 있으며, 전남도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골프장 3개를 줄이겠다’는 내용의 1차 수정안을 지난주에 제시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12월 J프로젝트 내 5개 예정지구 가운데 삼호지구에 3개, 구성지구에 9개, 초송지구 10개 등 3개 지구에 모두 22개 골프장을 조성한다는 개발계획안을 마련, 정부에 승인을 신청해 둔 상태다.

전남도는 1차 수정안까지 제시했음에도 환경부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훨씬 더 많은 9개의 골프장을 줄이도록 요구하자 ‘아예 사업을 하지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3개 예정지구의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3개 SPC(전남법인) 모두가 골프장을 주요 수익원으로 삼고 있어 골프장 축소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는데다, 건설이 예정된 22개 골프장 가운데 무려 41%인 9개를 줄일 경우 사업추진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골프장이 크게 감소할 경우 개발계획의 기본틀이 바뀌는 것만 전제적인 개발일정이 지연되는 등 후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전남도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전남도는 이에 따라 기존에 제시한 ‘골프장 3개 감소’를 마지노선으로 정하고, 추가적인 감소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기준이나 근거도 없이 ‘골프장 9개 감소’를 요구하는 것은 J프로젝트를 통해 발전의 도야관을 마련하려는 전남도의 발목을 잡겠다는 얘기”라며 “협의는 계속하겠지만 무리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3개 예정지구 개발계획에 대한 정부부처 협의가 모두 마무리되면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검토와 국토해양부의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회, 국무총리실 기업도시위원회 등을 거쳐 승인 여부가 관건이 된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여수 엑스포 성공 키는 SOC 시설 구축”

박지사 등 사라고사 운영 방식 교환 얻어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와 성공하기 위해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 개발과 완벽한 인프라 준비 그리고 효과적인 사후활용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부터 시작된 ‘2008사라고사 박람회’에 참석하고 있는 박준영 전남도지사와 오현섭 여수시장, 배택휴 전남도 엑스포지원관 등은 이번 사라고사 박람회를 통해 여수박람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몸으로 느끼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오는 9월 14일까지 열리는 사라고사 박람회는 특정한 주제나 콘텐츠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인정박람회’로서 여수 박람회와 성격이 똑같은 만큼, 박람회 운영방식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현장에서 보고 배울 것이 많다는 얘기가.

배 지원관은 “사라고사 박람회 주제인 ‘물과 지속가능한 개발’은 친환경적이고 세계적인 이슈라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며 “여수 박람회도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을 주제로 하고 있어, 해양과 친환경이라는 두 가지 요소를 효과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SOC를 비롯한 기반시설이 얼마나 잘 구축됐는지도 박람회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사라고사는 이번 박람회를 앞두고 고속전철 등 사회간접자본 투자를 확대하고 대규모 전시시설을 건설했지만, 정작 국제공방이 없어 해외 관광객의 경우 마드리드에 도착한 뒤 사라고사까지 이동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홍형기기자 redplane@

<p>조이 여행사</p> <p>일본 - 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439,000 559,000 699,000 559,000 519,000 329,000 	<p>중국 - 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945,000 995,000 <p>무인 + 여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19,000 719,000 739,000 769,000 439,000 	<p>국문 러시아 - 제주로트릭 6일 1,170,000</p> <p>중국 - 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29,000 829,000 <p>일본어 - 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599,000 699,000 699,000 749,000 999,000 <p>대한민국 - 제주로트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70,000 	<p>일본 - 패키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170,000 140,000 293,000 <p>국내 관광 - 제주로트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85,000 99,000 249,000 <p>합인항공권 + 전세버스</p> <p>각종 비지문의 담당 직통전화 ☎ 233-5900</p>
---	---	--	--